

3842
349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것임.

— 周邊環境與件 —

美·日의 對北傀 態度 展望과
中·蘇의 立場

주최기관
일문대향정액
308325222
미국대향정액

研究執筆責任 金 學 俊
(略歷) 서울大 文理大 政治學科卒 (1965)
서울大 大學院卒 政治學碩士 (1969)
美國피츠버그大學院卒 政治學博士 (1972)
서울大 文理大 教授 (1973)
서울大 社會科學大 教授 (1974~)

刊行責任 梁 在 燾 (政策企劃室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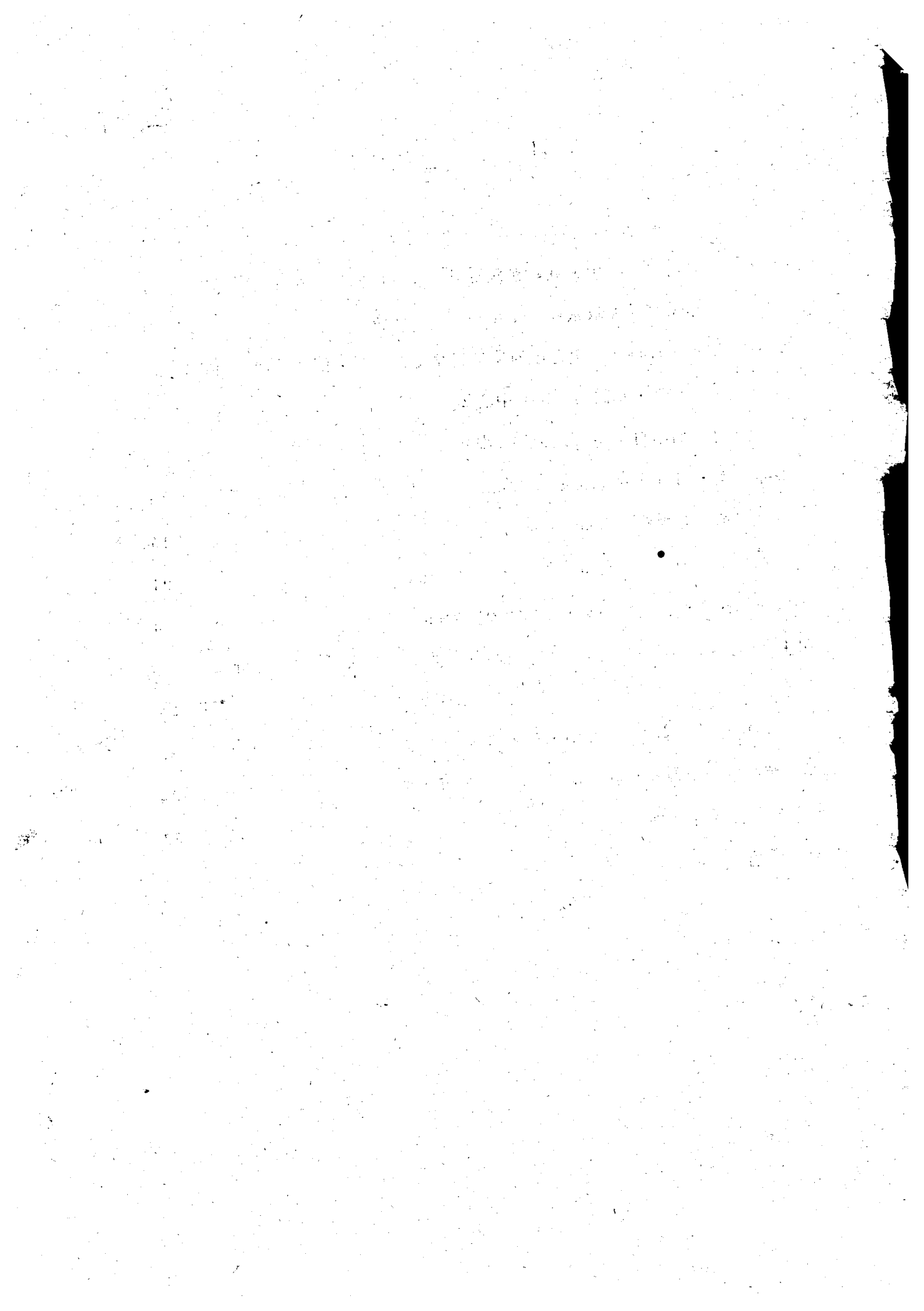
.....

.....

.....

目 次

序論 ; 問題의 提起	1
第1章 北傀의 對 中·蘇政策決定의 한 要因으로서의 美國과 日本의 對韓政策의 變化와 그 性格	3
第1節 「카터」 美行政府의 對韓政策의 變化와 그 性格 ; 美·北傀關係를 中心으로	3
第2節 日本의 對韓政策의 變化와 그 性格	11
第2章 美·日의 對韓政策의 變化에 對한 北傀의 反應	16
第1節 美國에 對한 反應	16
第2節 日本에 對한 反應	21
第3章 蘇聯·中共·北傀의 三角關係 總論	24
第4章 變化하는 狀況속에서 北傀의 對 中·蘇政策의 分析과 展望	32
第1節 北韓의 對 中·蘇政策의 基本方向	32
第2節 北韓의 中·蘇에 對한 要求	34
第3節 中共과 蘇聯의 對應	37
結 論	45



序論 : 問題의 提起

1977년 1월 「카터」(James Carter) 民主党政府의 出帆이후, 美國政府는 對韓政策의 變更을 의미하는 일련의 措施를 취해오고 있다. 우선 大韓民國에 대해서는, 이른바 「道德外交」를 내세워 韓國의 「人權問題」를 拳論하면서 政治体制의 變化를 요구하는 印象을 주는 한편 駐韓美地上軍의 단계적 撤收를 결정했다. 그리고 北韓에 대해서는, 美國市民의 北韓에 대한 旅行制限을 해제하고 北韓과의 修交可能性을 示唆하는 한편 北韓이 1973년 이래 제의해 온 北韓·美國간의 이른바 「平和協定」에 꽤 호의적인 反應을 보여 주고 있다.

美國政府의 이러한 政策轉換은 자신의 對外政策의 遂行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으로 美國의 이니셔티브에 의존하고 있는 日本政府가 韓半島政策을 전환시키는 契機가 되고 있다. 日本政府는 北韓의 이른바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을 포함한 政治人의 日本入國을 허가했으며, 北韓과의 關係改善을 公言하고 있다.

이러한 變化는 南北韓關係에 있어서의 南方3角關係, 즉 韓·美·日 3角關係의 性格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같은 韓·美·日 南方3角關係의 變化는 南北韓關係에 있어서의 北方3角關係, 즉 北韓·中共·蘇聯 3角關係의 性格에 어떤 變化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本稿은 이러한 問題意識에서 출발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問題들을 주로 분석하려는 하나의 試圖이다.

첫째, 美國과 日本의 對韓政策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특히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政策은 어떻게 바뀌고 있으며, 그러한 變化를 추구하고 있는 政策樹立家들의 論理는 무엇인가?

둘째, 이러한 變化를 우선 蘇聯과 中共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셋째, 이러한 美·日의 政策變化를 北韓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變化에 대한 中·蘇의 対応에 北韓은 어떻게 対応하고 있는가?

넷째, 이러한 韓半島 周辺情勢의 變化는 北韓으로 하여금 對南武力挑發에 積極性을 띠게 할 것인가? 또 그러한 경우, 中·蘇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第1章 북괴의 對中·소政策決定의 한 要因으로서의 美國과 日本의 對韓政策의 變化와 그 性格

第1節 「카터」 美行政府의 對韓政策의 變化와

그 性格：美·北僞關係를 中心으로

軍備競争 및 核拡散의 防止와 人權尊重을 그 對外政策의 兩大支柱로 하는 「카터」 行政府의 發足이후, 韓半島問題에 대한 美國內의 認識에 상당한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는 証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認識의 變化 가운데 가장 주요한 것은 美國의 安全保障을 위한 韓國의 戰略的 價値는 매우 낮으며 따라서 美國은 韓國을 軍事적으로 지켜줄 必要가 없으며, 韓國에서 第2의 韓國戰爭이 발생한다고 해도 美國은 결코 다시는 이 戰火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는 主張이다.

우선 韓國의 戰略的 價値를 輕視하는 사람들은 「均衡과 牽制의 競技」를 屬性으로하는 東北亞細亞의 「4極構造」의 安定性을 강조한다.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東西의 緊張緩和가 본질적으로 安定性을 갖고 있고 또 상당히 持久的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들은 『蘇聯과 中共이 모두 美國과 밀접하고 우호적인 關係를 유지하려는 장기적 政策을 보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地域에 있어서 美國의 安保는 美·日安保關係의 基礎 위에서 유지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들은 같은 論擲에서 韓國의 安保가 日本의 安保에 重要하다는 전통적인 解釋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¹⁾ 韓半島 全体가 共產化되어도 그 國家는 日本에 對해 武力攻擊을 시도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만일 日本에 對해 外部로부터의 攻擊이 있는 경우, 美國의 核우산이 필요·충분한 要素이며 日本内部의 騷擾와 叛亂行爲에 對해서는 日本自衛隊 및 警察力으로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같은 論擲에서 대규모적인 對南攻擊을 위해 北韓이 要求할 支援을 中·蘇가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美軍의 단계적 韓國撤収가 武力攻擊의 可能性을 增大시킬 것으로 생각하는 理由」를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北韓의 軍事力에 對한 韓國의 優勢를 강조한다. 따라서 北韓의 對南武力攻擊을 韓國은 美地上軍의 存在 없이 또한 美空軍力의 支援만으로 충분히 격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 駐韓美軍의 撤収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美國이 다시는 베트남戰爭과 같은 亞細亞의 地域戰爭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예컨대 맥거번(George McGovern) 上院議員 같은 이는 『우리는……〔韓半島에〕 戰爭이 발발한다 해도 介入되어서는 안된다는 어쩔수 없는 安全의 利益이 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²⁾

이와 비슷한 主張은 國務省의 極東 및 太平洋地域担当 國務次官 「리처드·홀브루크」의 論說에서도 발견된다. 이제 美國은 더 이

상 亞細亞의 地域紛爭에 휩쓸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論理가 심해지는 경우, 韓半島 全体가 共產化統一이 되어
도 美國의 安保에는 아무 支障이 없다는 線에까지 나가고 있다.

前示 맥거번의 表現으로는 『韓國의 평화적 統一이 비록 蘇聯이나
中共에 더욱 가깝게 제휴된 韓國政府를 낳는다 해도 그것에 의해
우리의 安保利益은 심각하게 위협되지 않을 것이다.』³⁾

이처럼 戰略的 또는 安保的 側面 외에도 이른바 「人權問題」에
따른 徹軍論理가 있다. 韓國이 「人權問題」에 관한 美國의 要求
에 순응하지 않는 한 韓國으로부터 核武器와 駐韓美軍을 철수시켜
야 한다는 것이다. ⁴⁾

이같은 霧困氣 속에서 美國政府는 駐韓美軍의 徹收를 단행함과
同時에 이에 대한 補完을 외교적 側面에서 시도하려는듯 하다.

밴스(Cyrus Vance) 美國務長官이 오는 8월 下旬 中共을 방문하
고 美·中共간의 關係正常化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韓半島 문제도
아울러 學論할 것으로 보도되었다. 外信에 따르면, 밴스長官은 党
主席 華國鋒등 中共指導者들과의 일련의 會談에서 駐韓美地上軍의
徹收計劃을 포함하여 韓半島의 情勢 全般을 협의하고 中共이 北傀
金日成의 再南侵企圖를 억제시킴으로써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을 유
지하는데 이바지할 것을 촉구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을 위해 美·蘇·中共·日등 周辺強大國에
대한 그들의 交叉承認이다. 美國은 원래 南北對話를 통해 南北分

斷을 「制度化」하고 「平和体制」化하여 4強이 이를 자연스레 승인함으로써 韓半島問題의 安定化를 추구했다. 이 構想의 底辺에는 北韓에 대한 認識의 錯誤가 있었음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60년대 南北間의 직접적 對話를 주장한 論者들은 北韓이 國際社會에 있어서 大韓民國과 同等한 地位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 「2개의 韓國」을 오히려 희망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傾向이 우세했다. 따라서 4強의 交叉承認 또는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을 北韓이 바라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北韓은 오히려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그와 동시에 사실상 内心으로는 「2개의 韓國」觀을 가졌으리라고 정당히 생각되는 中·蘇가 이 方向으로 움직이는 것을 저지하고 더 나아가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라는 論理로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2개의 韓國」에 대한 南北韓의 合意가 先行되고 이를 국제적으로 승인하는 유엔同時加入과 4強의 交叉承認이 後行한다는 원래의 構想은 일단 좌초한 셈이다. 여기서 美國은 4強의 交叉承認을 先行시켜 국제적으로 南北分斷의 制度化를 大勢化하고 이 氣運을 內燃化, 南北간의 合意를 요구하는 手順의 變更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의 이러한 변경된 構想이 高位水準에서 처음 제시된 것은 74년 11월 포드(Gerald Ford) 大統領의 訪韓에 따른 朴正熙 大統領과의 會談에서이다. 『中·蘇가 南韓에 대해 평등한 待遇를 한다면 美國도 北韓을 외교적으로 승인할 것을 고려한다』는 포드

의 提議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構想에 대해 北傀와 中共 및 蘇聯이 어떠한 態度를 보이고 있는지는 後述하기로 한다.

4 強의 南北韓交叉承認案과 더불어 美国内에서 거론되고 있는 韓半島平和保障案의 하나가 4 強의 韓半島安全保障案이다. 현재 카터 行政府의 安保担当特別補佐官인 브레진스키 (Zbigniew Brzezinski) 博士가 75 年 教授職에 있던 당시 이러한 構想을 발표했다는 점에 서 우리는 関心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4 強이 南北韓간의 武力衝突을 방지하도록 하나의 不可侵協定을 체결한다는 構想이다. 5)

이러한 4 強協定案은 대체로 韓半島의 中立化案으로 연결되는 傾向이 있다.

① 카터 行政府에 의해 駐日大使로 기용된 맨스필드 (Mike Mansfield) 前上院民主党院内總務의 構想이 그것이다. 1960 年 10 月에도 韓半島에 대한 「오스트리아式 中立化」案을 제기한 바 있는 맨스필드는 韓半島를 포함한 東아시아의 諸問題들이 紛争의 当事国 뿐만 아니라 4 強의 参与와 合意 없이는 解決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4 強이 西太平洋地域의 여러나라들의 支持를 基盤으로 西太平洋의 「4 強国그룹」 (a quadripartite group) 을 결성하여 相互不可侵條約・相互合意에 의한 군사적 徹収・아시아水域에서의 海軍力の 制限・아시아에서의 核実験과 核擴張制限 등과 같은 構想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의했다. 그는 이것은 또한 「中立化된 東南亞」

(a Neutralized Southeast Asia)와 「中立化된 韓國」(a neutralized Korea)를 위한 提案등에 대해 公동의 反應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6)

② 헨더슨(Gregory Henderson)의 中立化發想의 起源도 오스트리아에 있다. 그는 南北韓에 대한 關聯強大國의 軍事적 支援(兵力의 駐屯 및 武器의 供給)을 서서히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오스트리아式 모델에 따라 4強의 保障아래 韓半島를 「中立化統一」할 것(a Fourpower guarantee - closely along the Austrian model of the unity, neutrality, and independence of the Korean peninsula)을 주장했다. 7)

③ 해리슨(Selig S. Harrison)의 韓半島中立化構想은 韓半島에 대한 4強의 일종의 消極政策(negative policy)을 의미한다. 그는 南北對話가 결실되기 위해, 우선 南北對決이 생각되어야 하며 이를 유도하기 위해 美國은 駐韓美軍을 철수하고, 이에 따라 韓國問題로 부터 4強의 「더 큰 分離」(greater detachment)를 촉진할 것을 제의했다. 이 과정에서 美·中·蘇는 모두 南北韓에 대해 各自의 軍事條約을 약화하고, 4強이 南北韓에 대해 「對稱的 關係」(symmetrical relationships)를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政策은 결국 南北韓에 統一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주게되며 4強의 공식적 條約 없이 韓半島의 「事實上의 中立化」(a de facto neutralization of the Peninsula)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⁸⁾

④ 백거번上院議員도 4強과 南北韓의 協議에 의해 韓半島를 中立化統一해야 한다 (six power discussions, including the four major outside nations and the two Koreas, to negotiate procedures for reunification and international neutrality) 는 案에 동조하고 있다.⁹⁾

그다음, 美國의 對北韓接近을 보기로 한다. 우선 美國과 北傀關係에 대해 다음과 같이 概括할 수 있다. 다음은 朴奉植教授의 表現이다.

1945 년이래 오늘에까지 美·北傀關係는 霧의 狀態였다. 그런데 최근 美·北傀關係에는 무엇인가가 생기고 있다. 종래 韓·美關係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美·北傀關係의 영향은 霧의 狀態였다. 그러나 앞으로 韓·美關係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美·北傀關係는 큰 變數로 등장할 可能性을 가지기 시작했다.

東北亞에 있어서 美國의 政策을 보면 일정한 期間을 두고 美國의 友敵關係가 轉倒되는 例를 보아왔다. 南北韓을 두고 美國의 友敵關係가 轉倒되는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美國의 亞細亞에서의 政策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 점은 見解에 따라 다를 것이나 적어도 中共과의 關係에서 보면 美國은 中共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던 狀況을 증오하고 있다. 그리고 美國은 北傀의 敵對性을 漂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美國은 中國大陸과 越南에서 相對者를 바꾸어도 美國에게 큰 損害가 없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따라서 韓半島에서 구태어 永久不變의 相對役을 고집할 必要가 있느냐의 問題가 제기되지 말라는 保障은 없다.¹⁰⁾

이 見解는 問題의 核心을 찌르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카터 行政府가 들어선 다음, 확실히 美國內에는 韓半島問題를 베트남問題와 거의 같게 보려는 이른바 「베트남相似論」(Vietnam Analogy)이 서서히 대두하고 있다. 즉 南北베트남의 問題는 기본적으로 民族主義 또는 民族解放의 論理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았으며 南韓 問題 역시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論理이다. 따라서 南北베트남의 問題가 결국 美軍撤収 이후 民族主義勢力에 의해 民族主義라는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었듯, 南北韓의 問題 역시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見解로 연결된다. 물론 이 見解에는 근본적인 錯誤가 있다. 南北韓의 問題에 있어서 民族主義勢力은 大韓民國이라는 点を 그들은 잊고 있는 것이다.

어떻든 이러한 論理를 念頭에 두면서 카터 行政府가 北傀에 대해 취한 行爲를 일별하기로 한다.¹¹⁾

키신저(Henry Kissinger) 前國務長官이 在職時의 美國의 韓半島 政策은 軍事的으로 韓國에 대한 防衛公約을 지킨다고 밝히고 政治的으로 韓半島에서 緊張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努力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표현되어 왔다. 그리고 이 緊張緩和의 方法으로 休戰當事者會談等을 계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카터 行政府에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먼저 駐韓美地上軍의 撤収로서 韓半島政策이 代表되고 있다. 이것이 前政府에서와 같이 韓國에 대한 防衛公約에는 어떻게 연결되며 韓半島 緊張

緩和에는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에 대한 政策的 說明이 명확하지 않다. 前政府와 「카터」政府의 對韓半島政策의 差異는 前政府가 韓國을 中心으로 하는 政策인데 비해 카터行政府는 既存하는 韓·美關係는 유지하되 北傀를 일단 獨立變數로 取扱하려는데 있다.

美國은 1977년 2월 北傀등 14개 潜在的 敵對國 또는 未修交國과의 關係改善의 原則을 발표했고 3월에 와서는 美國人의 北韓地域 旅行禁止解除措置를 취했으며 4월에 와서는 在美韓人僑胞를 포함하여 美國에 살고 있는 모든 外國人永住權者들에게도 같은 措置를 취했다. 12)

그리고 놀라운 것은 北傀의 對美單獨講和 要求에 대해 美國은 韓國이 同席하는 경우 対応할 用意가 있다고 하고있다 이러한 表現도 종래 美國이 제의했던 4者會談云云의 것과 方式이 다르다.

결국 카터行政府는 北傀와의 이른바 平和協定체결에 응할 것이 거의 확실하며, 이를 통해 駐韓美軍撤収를 合理化하고 韓國으로부터의 「 명예로운 脱出」의 名分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第2節 日本의 對韓政策의 變化와 그 性格

日本外交는 어느 나라보다 國內政治의 강력한 影響 아래 있으며¹³⁾ 또한 「自主外交」에의 높은 熱望에도 불구하고 國際政治面에서 거의 美國의 先導를 받아오고 있다. 따라서 카터行政府가 對韓政策을 바꿔나가자, 日本 역시 對韓政策의 變化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北傀에 대한 接近을 의미한다.

원래 日本内에는 日本이 北韓과의 關係를 「正常化」하고 南北韓에 대해 「等距離外交」를 함으로써 韓半島에 있어서 南北간의 힘의 均衡을 잡아줘야 한다는 主張이 있었다. 南北間의 均勢에 의해 「조용한 韓半島」가 유지되어 나간다면, 日本이 韓半島에 개입하게됨으로써 빚어질 國內외의 活動을 막을 수 있다는 論理이다.

美·中共데탕트는 日本으로 하여금 韓半島의 緊張緩和에 좀 더 적극적인 姿勢를 갖게 하고 특히 平壤과의 關係擴大(결국 점진적·단계적인 「2개의 韓國」을 의미한다)라는 現狀認定의 方向으로 나가게 하였다. 특히 74년 여름 기무라(木村俊夫)의 外相就任과 더불어 日本의 「等距離外交」는 재촉되는 듯했다. 그는 『만일 유엔에서의 大勢가 北韓承認의 方向으로 장차 흐른다면, 日本도 北韓承認을 고려하겠다』고 말하고 또한 『오늘날 南北韓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는 國家는 38개에 이른다. 이것은 하나의 示唆가 아닌가?』고 지적했었다. 14)

카터行政府의 出任 이후 日本政府의 對北傀接近은 더욱 加速化되었다. 예컨대 하토야마(鳩山威一郎)外相은 4월 21일 參議院 外務委員會에서 韓半島問題와 관련, 『南北統一을 위한 對話의 舞台를 만드는 것이 重要하며 統一問題가 最終的으로는 어떤 形態가 되든 經過的 措置로서는 南北韓유엔同時加入 및 交叉承認도 좋은 方法』이라고 말했다. 15)

그의 發言은 77년 初 美日頂上會談에서 협의된 南北韓對話促進의 具體案으로 日本政府가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 및 交叉承認을 추진 하겠다는 見解를 밝힌 것으로서 日本의 對韓半島政策이 새로운 段階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이어 日本政府는 77년 5월 2일 北傀의 이른바 「最高人民會議」 代議員團의 入國을 허용했다. 日本政府가 北傀의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의 日本入國을 허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3년 東京에서 國際議會聯盟(IPU) 總會가 열렸을때 北傀 代議員團을 入國시켰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日本과 北傀간 에 한정된 問題를 협의하기 위해 政治人의 入國을 허용한 것은 異例的인 것으로 풀이되었다. 16)

이어 후쿠다(福田夫) 日本首相은 日本이 對北傀關係를 개선하고 南北對話의 再開努力에 助力할 方案을 강구하기로 약속했다고 야마모토(山本幸一) 日本社会党副委員長이 5월 17일 말했다. 17)

한편 日本의 国会議員들 가운데는 駐韓美地上軍의 撤収計劃이 現實化되고 있으며, 美·日頂上會談에서 美·日兩國이 共同으로 韓半島의 平和維持와 自主統一을 위해 ①南北對話를 촉진하며 ②日本이 그같은 霧囿氣를 만들기 위해 보다 큰 政治적 役割을 맡아야 한다는 合意했음을 지적하면서 北傀를 對話의 廣場으로 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 北傀와 關係를 改善해야 한다는 主張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18)

여기서 잠시 日本의 「等距離政策」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펴
기로 한다. 19)

①日本政府는 国交正常化 이래의 韓國과의 關係를 無로 할 수
없고, 南北韓 双方이 “一民族二國家”를 거부하고 있는 狀況下에서
南北韓 “等距離”란 말을 공식적으로 表明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
제로는 韓半島의 現狀을 “一民族二政權”으로 파악하고 있다.

②日本國民은 물론 与野政黨이 韓半島의 現狀維持, 平和共存을 바
라고 있다. 심지어 共產黨까지도, 비록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
으나 北韓의 武力侵略에 의한 韓半島共產化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專門家들의 觀測이다. 왜냐하면 戰爭이나 暴力革命에 의한
韓半島共產化는 日本内에서의 共產黨의 政策路線과 배치될 뿐만 아
니라, 共產化된 韓半島는 반드시 日本共產黨의 내셔널리즘과 對立한
다는 것이다. 이렇고 보면 韓半島의 平和的 分斷에 대해서는 日
本の 保守勢力과 革新勢力간에 콘센서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③日本政府는 北韓을 平和共存의 틀속에 끌어넣기 위해서도 北韓
과의 交流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對北韓接近이 韓國政府의
平和共存政策과도 矛盾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때 日本은 비록 名分上으로는 “等距離”라는 用語를
조심스럽게 피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今後 對韓半島政策의 基本方向
으로 南北韓等距離를 겨냥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等距離外交의 進展与否는 ①北韓이 革命外交에서 어느 種度

로 現實外交로 方向轉換을 하느냐 ②蘇聯·中共의 對韓(南韓)政策의 變化可能性 여하 ③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美國의 対応態度 如何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日本政府가 目標로 하는 南北韓等距離外交는, 日本의 立場에서 보아 바람직한 事態進展이 있을 때를 前提로 하는 것이란 점에서 하나의 理想型이며, 現實의 南北韓에 대한 距離의 同質性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現實적으로는 日本의 南北韓 等距離 論議에 대해서 北韓은 民族分裂政策이란 理由로, 韓國은 日本이 韓半島共產化 統一戰略을 바꾸고 있지 않은 北韓의 現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韓國의 安保에 障礙要因이 된다는 理由로 各己 反對를 하고 있다.

第2章 美·日의 對韓政策의 變化에 대한 북傀의 反應

이러한 美·日의 對韓政策의 變化는 北傀로부터 어떤 反應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가? 다음에서 우선 北傀의 美·日兩國에 대한 反應을 살펴가로 한다.

第1節 美國에 대한 反應

北傀가 취해온 對美平和政勢의 內容은 때에 따라 약간씩 差異가 있었으나 그基本은 美軍을 철수케하는데에 있다. 美軍의 韓國주둔을 正當化시키는 理由를 제거하기 위해 北傀는 그동안 여러가지 表現과 方法을 써왔는데, 最近 北傀의 對美平和政勢와의 關聯에서 주요한 것은 北傀의 美國 輿論에의 직접 呼訴이다. 이 方法이 카터行政府의 出帆이후 좀더 本格化되고 있다. 특히 對美平和條約의 締結을 놓고 더욱 그러하다. 즉 北傀의 對美平和政勢의 對象은 美國議會를 中心으로 하는 輿論이며 方法은 平和條約의 締結을 요구하는 것이 基本이 되고 있다.

카터를 겨냥한 北傀의 구체적 제스처는 지난 77년 1월 金日成이 카터에 關係改善提議의 메시지를 보낸일이다. 이어 77년 1월 金日成은 日本의 久野忠治 議員과의 對談에서 “카터의 駐韓美軍撤

收 公約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20)

다음 北傀는 카터行政府에의 接近努力의 一環으로 從來 美国에 대한 呼稱을 「美帝」라고 해오던 것을 「美国」 또는 「美国好戰階層」이라고 부르고 있다. 예컨대 77년 2월 7일 北傀軍 創建 29돌 「記念報告會」에서 駐韓美軍撤收와 对美平和協定締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美国」이라고 호칭하였다. 그리고 지난 1월 12일자 『노동신문』은 駐韓美軍의 撤收를 반대하고 北傀와의 戰爭威脅을 경고한 존 베시 유엔軍司令官을 비난하면서 「美国 好戰階層」이라고 하여 美軍撤收를 하려는 카터政府와 존 베시將軍등을 구별해서 공격하려는 姿勢를 보였다. 즉 카터行政府의 駐韓美地上軍 撤收를 美軍의 완전 撤收로 연결시킬수 있기를 바라면서 北傀는 그들의 对南 赤化政策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美国의 움직임에 대해 언급할 때는 「美国」이라 부르고 있으며 그들의 政策에 반대되는 事項에 관해서는 여전히 「美帝」라고 부르고 있다.

한편 美国의 与論을 혼란시키기 위해 지난 2월 10일 유네스코駐在 北傀代表 이종혁은 『두개의 韓國으로부터 하나의 聯邦共和國을 창설하는 것이 統一을 향한 건설적인 進展으로 생각한다. 우리 [北傀]는 이의 實施를 위해 核武器를 포함한 美軍이 철수하기 前이라도 美国이나 韓國政府와 協商할 用意가 있다』²¹⁾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美軍撤收를 위한 对美協商의 用意 表明이라고 하겠다.

다음, 77년 3월 18일 朝總聯副議長 李季白은 시기적으로 美國의 越盟諮問使節들이 하노이에 도착한 다음 날을 挾해서 記者會見을 가졌다. 여기서 李는 “美國은 韓半島政策을 재검토할 時機가 왔다”고 말하고 美·北僞間에는 공적인 接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事實을 想起시키면서 金日成은 韓國으로부터 軍隊를 철수시키겠다는 카터의 約束에 큰 関心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李는 「카터」는 正義의 사나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美國과 對話하는데 어떠한 條件도 붙이지 않는다. 美軍撤収를 先行시키라던지 하는 어떠한 條件도 붙이지 않는다. 우리는 최종적인 平和條約의 체결, 美軍撤収, 그리고 兩國人民間의 關係改善을 포함하는 모든 題案을 토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하였다. 이 會見을 보도한 『뉴욕 타임즈』의 말콤記者는 이 報道에서 『사실 최근 韓國政府의 美國에 대한 發言은 北僞의 그것보다 더 비판적이었다』고 하여 北僞側의 美國에 대한 平和攻勢를 好意的으로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2)

다음, 北僞의 對美單獨平和努力을 본다. 北僞가 그동안 「美帝」의 撤収만 주장하다가 對美單獨講和의 方向으로 政策을 바꾼 것은 越南에서 1973년 1월 經戰協定이 체결되어 여기서 美軍撤収가 규정되고 美國에 의한 하노이政權에 대한 經濟援助가 약속된 뒤인 同年 4월의 일이었다.

1973년 4월 北僞의 소위 最高人民會議 第5期2次會議가 美國

議會에 보내는 便紙를 채택하는 異例的인 措置를 취했다. 여기서 北傀는 「7·4 共同聲明」과 南北調節委員會가 金日成이 제창한 自主, 平和統一, 民族的 大團結의 三大原則에 의해 成立은 되었으나 美軍이 주둔하고 있고 韓國軍의 現代化計劃등을 돕고 있기 때문에 南北對話가 잘 안된다고 하고 南北間끼리 問題를 해결할 터이니 美國은 나가달라는 要求였다.

그리고 이 會議에서의 金一의 報告는 『이제까지 싸우던 越南에서도 平和協定이 체결되고 美軍이 철수하는데 休戰協定이 체결된지 20년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平和協定을 맺지 못할 理由가 없을 것이며 南韓에서 美軍을 내보내지 못할 理由가 없을 것이다』라고 그동안 戰爭의 形態로서 越南型을 韓國에 심으려해왔는데 이때부터 越南型平和를 韓國에 적용시키려고 했다.

둘째로 北傀는 1974년 3월 25일 美國에 대해 平和條約締結을 정식으로 제의하고 이를 유엔戰略의 一環으로 삼았다. 그리고 1975년 제 30차 유엔總會에서는 美國과 单独平和를 하자는 北傀의 主張을 담은 決議案이 우리側 決議案과 함께 통과되었다. 그리고 1976년 9월 北傀는 韓國을 제외한 美國과의 单独平和條約을 요구하고 決議案도 제안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소동을 벌렸는데 이것은 그해 여름에 열린 非同盟會議의 不振과 8·18 板門店事件의 結果였다. 이때 北傀가 그들의 決議案을 철회하면서도 第30次 유엔總會 決議의 조속한 履行 즉 美·北傀平和條約 締結을 촉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23)

다음, 北傀와 對美平和攻勢와 「南北政治協商會議」案에 대해 살펴
기로 한다. 北傀는 지난 1월 25일 「諸政黨·社會團體 連席會議」
를 열고 여기서 「南北政治協商會議」를 열어 統一을 기하자고 제
의하여 카터의 美地上軍 撤收論에 步調를 맞추기 위해 平和攻勢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會議가 열린 時機가 北傀首相 朴成哲이
經濟援助를 얻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있는 때 열렸다는 事實
도 의미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北傀는 카터에 의한 美地上軍 撤收
를 美軍의 完全撤收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나 南北對話에 誠意가 있다
는 것을 列強에 誇示하기 위해서도 또 하나의 偽裝平和攻勢가 필요
했기 때문에 平壤駐在 内外記者들에게 이 提議를 報道케 했다.

北傀는 이 提議에서 『北의 社會主義力量과 南의 愛國的 民主力量
의 大聯合』을 통해서 나라를 통일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제안
한 不可侵協定은 分斷을 永久化시킨다는 理由로 이를 反對하고 있다.
그리고 두개의 韓國政策을 취소하고 反共을 그만두면 民主人士에 대
한 彈壓을 중지하고 戰爭政策을 포기한다면 모든 사람이 政治協商
會議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하여 反共이 아니라 聯共을 하는 사람이
면 協商會議에 나오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南北政治協商會議」提議는 우리가 南北不可侵協定이 체결된
다면 美地上軍이 철수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政策聲明에
대한 對應宣傳으로 제기된 점도 아울러 있는 점은 北傀가 계속 不可

侵協定反對를 계속하면서 政治協商會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諸政黨·社會團體連序會議」의 이름으로 「南朝鮮의 諸政黨·社會團體 各界名譽 人民들 海外同胞들」에게 보내는 便紙에서 ①南과 北의 革命力량의 大聯合 ②統一을 위한 南·北 사이의 緊張狀態 緩和와 核戰爭危險 除去 ③民族內部不和의 根源을 없애고 民族的 團結을 위해 言論·出版·集會·結社·示威의 自由保障과 經濟的 合作實現 ④이를 위해 「政治協商會議」를 하자고 제의했다. 이러한 提議에서 역사적으로 체결된 7·4 共同聲明과 그 동안의 南北對話에 대한 言及이 없는 점으로 보아 北傀는 對話成立 이전의 對南赤化戰略으로 되돌아 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北傀의 카터에 대한 政策은 위와 같이 카터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될 美地上軍의 撤収를 北傀의 對南戰略을 위해 유리한 狀況의 造成으로 보고 이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이것이 美軍의 完全撤収로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偽裝 平和政勢를 다 취하고 있다.

第2節 日本에 대한 反應

77년에 들어오면서 北傀는 駐韓美地上軍의 撤収를 반대하는 日本에 대한 攻撃을 계속하고 있다. 『韓半島 全体를 집어 삼키려는 日本反動들의 策略』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統一이 이룩되기 위해서는 美國이 이 땅에서 나가면 그만인 것』이라고 하여 對南戰略

과 카터를 향한 美軍徵収要求를 연결시키고 있음을 본다.

이와 동시에 北傀는 日本政府가 카터行政府의 對北韓政策을 踏襲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金日成은 지난 4월 23일 『요미우리』(読売)新聞編輯局長 이사토와의 會見에서 “日本政府가 우리나라와의 關係에서 큰 變化는 없겠지만 美国이 朝鮮에 對한 旅行制限措施를 취소한다고 한 條件에서 日本政府도 그에 따라 우리나라와 人事往來와 文化交流나 좀 더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두나라사이에 人事往來를 자유롭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리는 現 日本政府에 이보다 더 큰 것을 期待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金은 이 會見에서 『우리는 日本政府의 우리와만 關係를 갖고 南朝鮮 當局者들과 關係를 끊으라고 무리하게 要求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것을 要求할 필요도 없으며 또 그렇게 要求한다고 하여도 실현될 수 없다. 우리나라가 통일되지 않은 條件에서 그런 것을 要求하면 日本政府로서는 난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朝·日 두나라 사이에 關係問題와 관련하여 日本政府에 큰 期待를 가지지 않는다. 우리가 日本政府에 대하여 바라고 싶은 것은 우택바라의 統一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韓半島의 統一을 「방해하지 않는 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인가? 金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日本政府가 朝鮮의

統一을 방해하지 않는 政策을 실시한다는 것은 南朝鮮 反動들과
같이 美國軍隊가 南朝鮮에 영구히 주둔할 것을 요구하지 말며, 南
朝鮮에서의 人權彈壓 策動을 옹호하는 行動을 하지 않으며 또 南
朝鮮 反動 統治輩들의 배를 불리는 일을 하지 않는것』이라고 규
정하고 있다. 즉 ①駐韓美軍의 徵收 ②反韓政策으로 연결되고 있
는 것이다. 이어 金日成은 北傀와 日本간의 貿易關係의 擴大, 漁
業協定の 締結등을 요구하였다.

第3章 소련·中共·북한의 三角關係 : 總論

오늘날 蘇聯·北韓·中共의 三角關係는 다음과 같은 要素 위에 형성되어 있다. 그 要素들을 韓倍活教授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24)

- ① 中·蘇는 東北亞에 있어서 主要 敵對勢力으로 對決狀態를 유지하고 있다.
 - ② 中·蘇는 다같이 美國 및 日本과의 關係改善을 통한 實利追求를 원하고 있다.
 - ③ 中·蘇는 다같이 日本의 再武裝을 원치 않고 있다.
 - ④ 蘇聯은 美國·日本·中共 3國이 결탁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 ⑤ 中·蘇는 다같이 北韓과의 關係維持를 필요로 하나, 특히 安保上의 理由 때문에 中共의 北韓에 대한 利益關心은 蘇聯보다 높다.
 - ⑥ 北韓은 中·蘇紛爭을 자신의 實利追求에 유리하게 이용, 兩大 共產國으로 부터 軍事·經濟·政治的 支援을 획득하면서 그 중 어느 하나의 共產大國에 의한 支配를 방지·견제하고 있다.
- 이처럼 重疊되고 複合的인 여러개의 二國關係를 바탕으로 한 것이 蘇聯·中共·北韓간의 三角構造인 만큼 그 構造가 安定된 것만

은 아니며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中·蘇간의 紛争과 그 解決形態 如何에 따라 상당한 可變性도 지니고 있는 構造이다. 假想的으로 中·蘇紛争이 종식되고 兩國간에 대 땅뜨가 이뤄졌을 경우, 그리고 日本과 美国간의 特殊關係가 와해되어 美国의 日本에 대한 영향력이 대폭 상실될 경우 國際環境은 큰 變質現象을 겪을 수 있다. 예컨대 오늘날 4極構造에서 美国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蘇聯에 의해 대치되고 日本이 中共에 의해 대치되면서 蘇聯이 中共을 지렛대로 삼으면서 美日關係를 操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현재처럼 中·蘇紛争을 역이용하여 均衡狀態를 형성해 온 美国의 優位的 位置가 蘇聯에 의해 뒤바뀌어진다면, 北韓으로서도 南韓武力侵略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北韓으로서도 中·蘇紛争을 이용, 兩共產國으로부터 漁夫之利를 얻어 온 유리한 位置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蘇聯과 中共의 聯合勢力에 의한 완전한 支配下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中·蘇紛争이 本格화된 以來로, 北韓은 蘇聯과 中共사이를 왕래하면서 소위 「自主路線」과 「主体思想」이라는 名分을 내세워 그 어느 하나에 의한 单独支配圈에서 벗어나기 위한 努力을 계속해 왔다.

1962년 이후 金日成은 흐루시초프의 스탈린格下運動과 中共에 대한 敵對關係를 비난하면서 中共측에 가담하여 蘇聯의 對美宥和政策을 배격했고 中印戰爭당시 中共을 지지했으며, 쿠바 미사일危機 당시에도 中共과 立場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金의 親中共路線에는 상당한

否定的 代價가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蘇聯을 위시해서 東歐諸國이 經濟·軍事援助를 단절한 것이다. 심각한 타격을 입은 金日成은 흐루시초프가 실각하자 그 機會를 포착, 蘇聯과의 關係를 改善, 1965 년의 柯西긴 平壤訪問을 頂点으로 蘇聯으로부터 兩個의 새로운 防衛條約 締結을 포함하여 대규모적인 軍事援助를 얻을 수 있었다.

60 년대에 있어서 北韓·蘇聯關係가 好轉되자 中共의 對北韓態度는 惡化一路를 걸게 되었다. 1966 年 3 月의 中共第 23 次大會에 北韓은 代表團을 파견했으나 中共에 의해 보이콧 당했다. 文化大革命期間에 兩國關係는 最惡에達했고 紅衛兵들은 공공연히 北韓을 “修正主義幹部”로 부르고 金日成個人에 대해서는 “百萬長者, 貴族, 大부르조아지”라는 酷評을 不辭했다.

北韓·中共關係가 好轉되기는 文化革命 이후의 일로서 1969 年 10 月 崔庸健의 北京訪問을 계기로 兩國間에 關係改善이 이뤄졌으며 通商關係도 正常化되었다. 그後 周恩來가 平壤을 방문한 뒤 北韓에 대한 中共의 經濟·軍事援助도 再開되었다.

이처럼 中·蘇와 關係好轉을 이룩한 北韓은 兩大 共產國에 대한 일종의 等距離關係를 유지하고 中道的 路線을 추구하면서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中立政策을 지향해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中·蘇가 이러한 北韓의 中立的 姿勢를 달갑게 여기지는 않으나 너무 과도하게 壓力을 가하면 北韓을 相對方 쪽으로 몰아붙이는 結果를 가져올 수 있다는 判斷아래 自重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可變性이 높은 北韓·蘇聯·中共의 三角構造는 北韓에게 두 가지 制約을 加하고 있다. 즉 첫째로 北韓으로서 中共이나 蘇聯 어느 하나로부터도 無條件的인 支持·援助를 얻기 어렵다는 事實이다. 兩大 共產國이 合意默契를 본 것이 아니고서는 그와 같은 支援은 얻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것은 金日成이 中·蘇 사이에서 漁夫之利를 얻는 代身에 치러야하는 代價이다.

또 하나의 制約은 北韓의 利益과 中·蘇의 利益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相反될 수도 있다는 事實이다. 蘇聯이나 中共은 北韓처럼 韓半島 統一問題를 그다지 높은 優先順位에 두지 않을 수도 있다. 中·蘇紛爭에 解決이 있기까지는 中·蘇는 계속해서 서로에 대한 威脅, 對廼問題와 對美·對日關係의 好轉을 꾀하는 政策에 높은 優先順位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北韓의 立場에서 볼때, 對南侵略計劃의 推進이나 武力挑發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는 制約條件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構造的 制約을 안은채 北韓은 70年代 初부터 변천하는 “ 國際環境에 대응하면서 대체로 다음 세가지 基本政策을 中心으로 對南攻勢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로, 北韓은 輕工業과 消費商品開發에 새로운 力點을 두는 經濟計劃을 추진하여 韓國과 經濟的 競合을 전개하고 있다. 이 點은 南北對話過程을 통해서 北韓이 도달한 새로운 政策的 結論이었으며 이러한 政策修正의 必要性은 消費經濟面에서나 重工業面에서

優位를 차지하기 시작한 韓國經濟의 發展相을 목격한 北韓代表側에 의해 더욱 강조 확인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로, 北韓은 南韓을 국제적으로 孤立化시키는 동시에 自身の 국제적 承認獲得에 모든 努力을 경주해 오고 있다. 北韓은 그 점에서 南北對話를 심분 이용했으며 西方諸國과 國交開發에 성공했다. 北韓은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案에 반대하면서도 美國과 日本의 北韓 承認을 요구하고 있고 동시에 共產國家들이 韓國을 승인하거나 關係改善하는 것은 극력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北韓은 第3世界의 非同盟國家들의 支持獲得에 力點을 두어 그들의 協調아래 韓國을 국제적으로 孤立化시키는 策略을 적극 추진해 왔다. 金의 알제리아訪問, 페루에서의 非同盟會議參加, 亞阿諸國을 대상으로 한 활발한 微笑外交등이 그것을 방증해 준다.

그러나 현재 東北亞에 형성되어 있는 四大國 均衡關係의 性格으로 보아, 北韓의 韓國孤立化政策이나 武力赤化政策의 成功可能性은 극히 희박하다. 오히려 지금의 趨勢대로 간다면 四大國간 「2개의 韓國」 政策에 대한 合意와 默契가 성립될 可能性이 크며 南北韓 交叉承認案이 실현될 蓄然性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美·蘇간의 테팡뜨가 와해되거나, 中·蘇紛爭이 해소되어 兩共產國이 테팡뜨를 이룩할 경우 狀況은 크게 변동할 수 있을 것이다.

中蘇紛爭의 歸趨는 매우 중요하다. 그理由는 兩大 共產國의 長期的인 對立이 해소되고 兩國의 提携아래 世界共產革命運動이 전개될

경우, 그것은 “冷戰의 復活”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國際環境에 급격한 變化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意味에서 中蘇紛爭의 解決은 허만 칸이 말하는 “轉換點”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은 事態가 전개되면 東北亞에 있어서 勢力均衡은 中·蘇優位の 權力構造로 돌변하면서 北韓의 戰略的 位置를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古典的 均衡體制—즉 美日간의 特殊關係가 해체되고 日蘇와 中蘇간에 和解가 이뤄지면서 美·蘇·日·中 四國關係가 相互競合關係를 형성하게 될때, 그것은 바로 古典的인 勢力均衡體制가 된다. —가 東北亞를 中心으로 형성된다고 가정할 경우 北韓은 그 國際環境에 의한 制約을 받을 것이며 그 속에서 또다른 一聯의 選擧圈을 마련하여 対処해 나갈 것이다. 古典的均衡體制 속에서는 蘇·中·北韓의 3角關係의 基本性格을 형성하는 要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 ① 中·蘇가 계속 競合的 關係를 지속하면서 緊張關係를 완화시킨다.
- ② 日·蘇간에 國交正常化가 실현된다.
- ③ 中·蘇가 실질적으로 “2개의 韓國”政策에 코밋트한다.
- ④ 美日關係에 있어서 對等·競合關係가 優勢한다.
- ⑤ 日本이 北韓과 外交·經濟關係를 개선한다.
- ⑥ 北韓이 과거 中·蘇에 대해 지녔던 操縱性을 대폭 상실하

게 되고 北韓의 지리적 條件이 가졌던 中共을 위한 戰略的
價値가 低下된다. 그러나 中蘇간의 勢力均衡維持에 있어서 北
韓이 차지하는 均衡子로서의 比重은 增大될 수 있다.

古典的 均衡體制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變數는 中·蘇關係의
改善, 日·蘇關係의 正常化, 그리고 美國으로부터 離脫하여 독자적인
役割을 달성할 수 있는 日本의 登場이다. 中蘇關係의 改善이 있
어도 그것이 中共에 대한 蘇聯의 支配콘트롤이 아니라 競爭關係
위의 正常化이어야 한다. 美日關係에 있어서는 日本이 완전한 核
武裝을 갖추어 獨自的으로 安保體制를 형성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완
전히 古典型의 均勢體制를 형성할 수 있으나 그 實現性은 극히 희
박하다. 따라서 美日關係에 있어서는 非對稱的인 關係가 계속 지
배하게 되지만 현재보다는 훨씬 대칭적인 關係가 나타나야 할 것
이다. 실제로 政治·經濟面에서는 그 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國題環境이 조성되었을 때 그테두리 속에서 北韓이 조종할
수 있는 選擇圈은 크게 보아 現在와 비슷한 것이지만 환경적 與
件이 北韓의 政策實現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可能性은 증대
한다.

첫째로, 北韓이 中蘇 勢力均衡 維持에 있어서 하나의 均衡子(bal-
ancer)로서의 地位를 차지한다면 北韓의 利益追求에 있어서 中·蘇
로부터의 支援을 획득하는 것이 現在보다 용이해질 수도 있는 것

이다. 이것은 軍事的 支援보다도 經濟面에서 더욱 可能的 일이다.

둘째로, 北韓과 日本이 접근했을 경우 貿易擴大를 통해 北韓은 經濟發展을 위한 財原과 技術을 획득할 수 있으며 南韓과의 經濟적 競争을 자기에 유리한 方向으로 전개시킬 수도 있다.

셋째로, 蘇·中·日과의 友好關係를 심분 이용하여 北韓은 美國에 대한 壓力作用을 가하면서 美國으로부터 韓半島問題에 대한 일련의 讓步 또는 折衷을 얻어낼 수가 있다. 동시에 第3世界의 同調를 얻으면서 自己의 국제적 位置를 한층 強化·上昇시키는 效果를 노릴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政策的 效果가 “2개의 韓國”이라는 基本政策의 受諾을 前提로 한 것인 만큼, 北韓으로서는 이러한 效果를 얻으려면 그것이 고집해온 “하나의 韓國”이라는 立場은 물론, 적어도 공적으로 南韓에 대한 武力赤化戰略을 포기해야 한다는 代價를 지불해야만 한다. 古典的 均衡體制가 조성되어 구체적 形態를 취할수록 北韓에게는 이와같은 兩者択一의 壓力이 加重되어갈 것으로 본다.

第4章 變化하는 狀況속에서 북 괴의 對中·소政策의 分析과 展望

第1節 北韓의 對中·蘇政策의 基本方向

北韓은 中·蘇의 「統制된 對立關係」에도 불구하고, 蘇聯과 中共의 兩國에 對해 友好關係를 유지코자 하는 基本方向을 표방하고 있으며, 그 態度는 北韓의 「自主路線」의 對外的 表現이라고 볼 수 있다²⁵⁾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傾似度는 親中共쪽으로 기울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蘇聯과의 關係도 우호적으로 持續코자 애쓰고 있는데 그것은 이른바 「對中·蘇等距離外交」에서 각기 實利를 추구코자하는 속셈에서 서이다. 그러나 北韓의 對中共 密着度에 비해 모스크바와의 關係가 상당히 미묘해지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이것은 결국 소련이 내심으로는 「現狀으로서의 韓半島의 分斷固定化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北韓의 민감한 反應에 연유되는 것이다.

中共·北韓의 밀착관계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점은 美·中共 接近에 대한 北韓의 긍정적인 評價(이른바 金日成의 白旗論·71년 8월 6일)과 經濟協力協定(71년 8월 15일) 및 軍事援助協定(71년 9월 6일)을 각각 체결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北韓이 美·中共 接近에 대해서 적극적인 評價를 표명해준데 대한 代價로 北韓측이 中共으로부터 구체적인 軍事적 保證을 받아냈을 것이라는 「이데올로

기와 實利追求의 相互連関性」을 클로즈업시켜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北韓의 對中·쏘政策의 基本方向은 「美狀으로서의 中·쏘·北韓 3角關係」와, 그리고 이 三角關係에 근본적인 그늘을 던지고 있는 「美·쏘平和共存体制의 具体化現象」과 「美·中共의 정치적 和解」 및 이에 수반되는 「美·中·쏘 相互交互逸脱作用」의 테두리 안에서 그 나침반의 進路는 流動性을 떨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流動性은 北韓의 對中·쏘政策의 基本方向에 필연적인 制約要因으로 등장하고 있다.

北韓은 中·쏘의 共產霸權鬭爭이 더욱 치열해지고 그 鬭爭이 격화될수록 中·쏘의 對北傀 포섭전략은 北傀로 하여금 外交戰線의 自主路線을 더욱 부드럽게 해주는 한편, 中·쏘는 北傀가 요구하는 經濟援助를 경합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는 空想이었다.²⁶⁾

그러나 朝鮮은 1976년도 新規 借款供与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1975년 償還期에 받아내지 못한 5억불借款을 5년 밖에 연기해 주지 않았다. 더우기 蘇聯은 北傀가 필요로하는 技術支援을 게을리함으로써 北傀가 당면하고 있는 「主体經濟」의 後進性을 방관시해 버렸던 것이다.

한편 中共은 비록 朝鮮에게 과시하듯 4억달러에 해당하는 資本供与를 1976년에도 新規承認한다는 계약을 맺었으나 中共도 자신의 經濟開發과 防衛産業의 近代化問題를 안고 있어 사실상 北傀가 中共에 요구하는 것은 中共의 「元」이 아니라 石油를 비롯한 基

幹産業 資源인 것이다. 그러나 中共은 北傀가 필요로하는 資源增加에 페이스를 맞춰주기를 꺼려하고 있어 사실상 긴급하고도 현실적인 支援을 中共으로 부터도 받지 못하는 형편에 놓여 있다. 그러나 毛死後 華国鋒体制는 北傀가 흑시 親소의 경향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를 두려워한 나머지 毛의 장례식에서 北傀使節團에 대한 관례를 깨고 優先順位の 格을 보여주었으나 金日成은 이러한 華国鋒의 예식적 優待만으로는 자신의 「自主路線」을 中共에 팔지 않으려고 온갖 死力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第2節 北韓의 中·소에대한 要求

다음, 北傀가 中·소로부터 얻으려는것을 구체적으로 살펴기로 한다. ²⁷⁾

1. 경제적 지원

北傀가 당면한 입장에서 볼 때는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한국의 4차 5개년계획을 의식한 次期 長期經濟計劃수립을 위한 경제지원 획득이 화급하다. 주로 소련의 원조를 믿고 시작한 6개년 경제계획의 실패는 『뉴욕 타임즈』 『르몽드』 『슈피겔』 『더 타임즈』 등 世界 有數紙들이 수차 보도한 바 있지만 金日成 자신의 年間 施政綱領인 新年辭에 잘 드러나고 있다.

76년 新年辭에서 金日成은 『75년 10월 10일 党 創建 30주년 의 大祝祭日을 맞아 6개년계획을 1년반이나 앞당겼다』던 호언장

담과 달리 강철과 시멘트의 「未完成高地」를 점령하고 새로운 經濟計劃을 위한 준비의 해」라고 했었다. 그런데 77년 新年辭에서도 『새 展望計劃을 위한 준비를 갖추는 完成의 해로 삼자』고 말함으로써 소위 緩衝期를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周知된 바와 같이 北傀의 經濟難은 金日成이 밝힌 것처럼 輸送難과 채취공업의 不振뿐만 아니라 原資材와 電力不足, 그리고 食糧不足등이 겹쳐 住民의 不滿이 加速化되는 局面에 이르고 있다. 특히 南北對話 期間에 목격된 韓國의 發展相에 자극되어 對西方 플랜트 導入에 치중한 나머지 결과적으로는 外債의 累増과 상환의무 불이행으로 국제적 신용추락마저 자초했다. 때문에 이와 같은 6개년계획의 실패, 財政難, 償還延滯額 累積 등을 해결하면서 韓國의 4차 5개년 계획에 대응하는 70년대 후반기 經濟政策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련에 그 支援을 애걸해야 할 입장에 있다.

2. 외교적 支援

첫째, 北傀로서는 77년 가을 유엔總회에서 再對決에서 유리한 基盤造成을 위해서 蘇聯과 中共의 적극적인 외교적 支援이 필요하다.

北傀가 76년 「北侵」威脅으로 인한 韓半島의 戰爭임박云々の 政府聲明(76년 8월 5일자)을 발표하고 8·18板門店 事件을 일으켜 이를 外交戰略에 원용하고자 했으나 콜롬보 非同盟頂上會談 結果에서 실증된 바와 같이 北傀의 外交策略은 실패하고 말았다.

또한 北傀는 76년 10월 15일 덴마크를 基點으로 노르웨이, 스웨

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統一아랍共和國, 심지어는 모스크바에서까지 마약밀수행각이 드러나 추방하는 수치를 겪었다.

이를 만회하고자 유엔에서의 再對決에서 決戰을 보아야 할 입장이며, 이를 위해 中·소의 支援을 요구할 것이다.

둘째, 北傀는 日本의 후쿠다新政權 登場과 美國의 카터新行政府의 登場에 따른 韓美日關係와 日·소간 平和條約등 현안문제의 해결과정에서 日·北傀關係改善에 대한 朝鮮과 中共의 對日壓力을 요청할 수 있다.

카터行政府의 對韓政策, 특히 駐韓美軍문제에 대한 日本의 反應은 韓國보다 유난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北傀가 극렬하게 日本에 대해 軍國 또는 反動云云하는 것만 보아도 그 속셈을 알 수 있다.

셋째, 駐韓美軍철수를 촉진키 위한 共同戰略의 수립이다. 특히 카터行政府는 『中·소와 협의하여 金日成의 南侵反對 내지 嚴禁을 보장받아 철수시킬수 있다』고 언급한 데목에 北傀는 큰 關心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2次大戰末에 스탈린이 루즈벨트에게 『毛沢東은 共產主義者가 아니다』라고 말하여 믿게 했듯 『우리는 機會 있을때마다 南侵을 앉겠다고 했으며 南에 社會主義制度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말을 中·소指導層이 카터行政府와 協商때 밝혀달라고 요청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軍授問題

北傀는 韓國軍 現代化의 急進展 및 駐韓美軍의 最新裝備增強에 대응하는 朝鮮의 최신장비 지원 획득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예컨대 77년 1월에 있는 朴成哲의 蘇聯 訪問에 現代戰에 무식한 吳振宇를 보내지 않고 第一副參謀長 金鉄萬을 보냈고 모스크바會議에도 빠짐 없이 배석시켰던 점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4. 對南戰略問題

北傀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韓半島의 分斷固定化를 맹렬히 반대하고 있으며 2개의 韓國論 또는 4強的 南北韓交叉承認등을 모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北傀는 中·쏘가 이러한 方向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中·쏘를 설득할 것이며, 그 論理는 南北韓問題는 기본적으로 民族解放의 問題이며 民族解放戰爭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第3節 中共과 蘇聯의 対応

1. 蘇聯의 対応

北傀의 이러한 態度에 대해 蘇聯은 어떤 反應을 보일 것인가? 첫째, 蘇聯은 北韓의 對南군사작전을 지지하거나 고무하지 않을 것이다. 바꿔 말하여 朝鮮은 스스로가 불가피하게 말려들 제2의 韓國戰은 회피할 것이다. 자고리아(Donald Zagoria) 교수에 의하

면 제 2의 韓國戰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① 美·蘇, 日·蘇 관계를 아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며 데탕트에 經慕을 가져올 것이다.

② 1950 년과 마찬가지로 中共의 군사적 介入을 가져올 것이며 따라서 北韓이 中共의 영향권안에 들어갈 危險性이 높아진다.

③ 日本의 再武装 및 美·日關係의 再強化를 가져올 것이다.

④ 많은 아시아 國家로 하여금 蘇聯의 팽창주의를 회피하기 위해 中共이나 미국으로 쏠리게 할 것이다.

⑤ 東아시아에 있어서 영토적 現狀의 認定을 의미하는 蘇聯제안의 「아시아集團安保」機構의 眞實性에 대한 중대한 疑惑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⑥ 長期的으로 볼때, 제 2의 韓國戰은 蘇聯의 최대의 惡蒙인 美·中·日同盟의 形成을 재촉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推定은 美國의 對韓防衛公約이 그대로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이며 北韓의 對南攻擊이 北韓과 美國의 戰爭을 가져올 것이라는 前提 위에 서 있다. 이러한 假定은 또한 日本이 韓國의 安保에 강한 利害關係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갖게 될 것이라는 前提 위에 서 있다. 그러나 이러한 前提가 무너지면 蘇聯은 다른 코스를 揞할 수도 있다.

특히 駐韓美地上軍의 철수는 東아시아의 국제정치상의 커다란 變化를 의미한다. 예컨대 지금까지의 南北韓간을 완충지대로 한

四極構造上에 점진적인 再編이 야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美·中共, 日·中共간의 和解促進을 뚜렷하게 예상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東아시아 국제정치 무대에서 北傀 위치와 北方삼각관계에서의 자주역량의 강화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하는 정세속에서 北傀에 대한 中·蘇間의 경쟁적 지원의 가능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변화는 국제정치에 있어 不安定과 위협을 수반한다는 측면에서 볼때 우리는 駐韓美地上軍의 철수가 南北간의 무력충돌을 야기시킬수도 있는 몇가지 상황을 여기서 가정해 볼수도 있다.

무엇보다 앞으로 추진될 美·中共간의 협조관계 및 日本·中共간의 和解촉진은 中共과 대치하고 있는 朝鮮의 아시아에서의 위치를 크게 위협할 것이·틀림없으며 이로써 朝鮮은 中·쏘분쟁의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따라서 朝鮮으로서는 美·中共 또는 日·中共간의 和解촉진에 제동을 가할 수 있는 方策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그 하나로 韓國戰을 생각할 수 있다. 28)

또한 만일 北傀가 駐韓美地上軍 철수에 편승하여 對美·對日의 정치적 接近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그 國際的 위치를 상승시킨다고 한다면 中·蘇는 中·蘇分爭에 있어서 北傀의 重要性을 더욱 重視할 수 있다. 이 경우 中·蘇는 더욱 경쟁적으로 北傀를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가설도 상정해 볼 수 있다. 29)

둘째, 그렇다고 해서, 蘇聯은 韓國을 인정하도록 北韓에게 壓力을 가하거나 또는 「2개의 韓國」을 공개적으로 들고 나올 것 같지는 않다. 蘇聯이 내심 「2개의 韓國」을 받아들여려는 태도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蘇聯은 北韓이 中共에 경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韓國정부의 正統性을 부인하는 北韓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이 두개의 극단적인 코스를 제외한다면, 다음의 두개의 온건한 코스를 생각할 수 있다. 30)

첫째, 北韓의 정책을 공식적으로는 지지하면서 蘇聯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사려 깊게 南韓과의 접촉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中共이 金日成의 北京방문때 (75년 4월) 中共은 韓國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상 蘇聯도 이 예를 따르도록 더 큰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北韓의 政策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蘇聯은 南韓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자고리아는 蘇聯이 현재의 韓半島상황이 아주 견디기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다. 中共도 美國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따라서 北韓에게는 「의심스러운 同盟」인 이상, 北韓이 中共진영에 넘어간다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으며, 北韓이 군사적으로 깊이 의존하고 있는 것도 蘇聯이며 北韓의 최대의 貿易相對도 蘇聯이라는 점을 그는 지적한다. 따라서 北韓이 蘇聯이 불가피하게 말려들

전쟁만 도발하지 않는한, 現狀況이 그렇게 나쁜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은 北韓에 대한 蘇聯의 統制手段 (leverage)이 어느 정도이냐이다. 물론 蘇聯이 北韓에 대해 어떤 압력을 가했느냐에 대한 例証들이 아주 드물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蘇聯과 越盟과의 관계에서 미루어 볼때, 蘇聯의 統制力은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닉슨의 蘇聯방문(1972) 前夜에 越盟은 군사작전을 계속, 결국 美國의 하이퐁港氣雷 부설을 유도했으며 이러한 事態의 進展은 蘇聯에게 당황스런 것이었다. 특히 中·蘇분쟁을 小國에게 策略이 機會를 주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 蘇聯은 對南認定 또는 南北韓의 데탕트를 돕는 方向으로 정책을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美國이 北韓과 「어느 정도 의미있는 對話」에 들어가고 美國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문제를 제기하게 될때, 蘇聯은 對南관계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中·蘇는 계속 南韓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美國만이 北韓과의 關係를 개선할지 모를 위험성이다.

2. 中共의 反應

中共의 對韓政策을 고려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念頭에 두어야 할것은 中共이 北韓을 소외시켜 蘇聯편으로 가담시키거나 南韓을 日本의 勢力圈으로 편입시키게 될 行爲는 회피할 것이라는 점이다.³¹⁾ 北方에서는 蘇聯의 支援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고 南方과 東方에서

日本勢의 등장에 대처해야 할 中共이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무모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中共은 『韓半島의 統一이 外勢의 간섭 없이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北韓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 닉슨과 周恩來의 공동성명과 그에 따른 美·中共관계의 進展을 분석해보면 韓半島에 관해 양국에게 공통적인 문제는 궁극적으로 統一에의 문제라는 점에 양국이 합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上海共同聲明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韓國統一問題가, 美·中共관계개선을 위해, 아시아에 있어서 超強大國의 패권문제·대만문제·인도차이나중전문제와 같은 수준으로 주요한 쟁점이라는 점이다. 中共의 견해로는 (이 점에 대해서는 美國도 同義했다) 韓國의 統一問題는 韓國人 스스로에 의해 자주적·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韓國의 統一問題에 관해 強大國의 解決방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北韓의 일관된 주장의 명백한 보장이자이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金日成은 1975년 4월 北京 방문 당시 그의 對南革命基本戰略에 대해 中共의 支持를 얻었다는 점이다. 즉 공동성명에서 中共은 『사회적 民主化와 조국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재통일을 위한 모든 계층의 남한인민의 공동투쟁을 고무한다』고 밝혔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金日成은 北韓이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라는 中共의 보장을 받아들임으로써 南北韓交叉承認과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에 의한 南北分斷의 安定化

를 위한 일체의 움직임에 뼈기를 박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中共은 「2개의 한국」론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1975년 9월 26일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행한 駐유엔中共代表 喬冠華의 강경한 연설은 키신저의 當事国会談案을 거부하고 있는 다음과 같이 추측하고 있다.

『韓國을 후원하는 美國의 키신저국무장관이 「2개의 韓國」을 두둔하면서 강경하게 나온 이상 北傀후원국인 中共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강경해야만 한다는 것이 喬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강경히 맞서 北傀를 두둔해 보았댔자 그것으로 당장에 「하나의 한국」이 이룩되는 것이 아님을 中共은 족히 알고 있는 처지이다. 말하자면 中共이 현시점에서 바라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韓半島에서의 현상유지는 최소한 가능한 것이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하나의 韓國」 支持라는 명분을 쥐고 세월을 기다리면 언젠가는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中共은 키신저가 제안한 「두개의 한국」을 거절하기에 이른것 같다. 사실상 한반도문제는 세월을 두고 기다리면 유리해진다고 하는 것이 中共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32)

이 認識論이 문제의 焦点이다. 崔榮教授가 지적하고 있듯, 33) 中共의 對韓半島戰略은 기본적으로 「기다리면 유리해진다」 「革命이 戰爭을 制裁한다」는 毛沢東의 「5·20指示」에 따른 것이다. 즉 中共의 전통적인 「持久戰略」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여, 「공간을 조직하여 시간을 형성하고 시간을 조직하여 정치사상공작의 果實인 意志를 형성하라」 34) 는 그들의 대중공

작노선에서 볼때 中共의 對韓半島戰略은 궁극적으로 국제관계론적次元에서 관찰하는 美國과 日本의 극동전략을 공동화하기 위해 「民族当事者끼리」라는 구호를 내세워, 「民族内部 問題化」하는 方向에서 설정하고 있는 것 같다.

結 論

최근 中共과 蘇聯의 高位使節團이 각각 北韓을 방문한 바 있다. 中共党中央委員이며 新疆軍管區司令官 楊勇을 團長으로 하고 空軍 副司令官 吳富善을 副團長으로 하는 中共軍使節團은 77년 5월 20일 平壤을 방문했으며, 蘇聯最高會議幹部會議 副議長 파벨 질라슈 빌리一行이 6월 2일 平壤을 방문했다. 中·蘇의 高位使節團이 각각 때를 같이 해서 北韓을 방문한 것은 56년 8월 北傀內 延安·蘇聯 兩派의 反金日成運動과 그 挫折로 빚어진 北傀政局의 소용돌이를 수습하기 위한 미코얌蘇聯副首相과 彭德懷中共國防相의 非公開的 平壤旅行이 있던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모스크바放送은 蘇聯使節團의 訪問目的질 『평양측과 당면한 국제정세등을 광범하게 토의하는 가운데 한반도통일의 달성을 위한 유리한 여건조성등을 숙의, 공산국가들의 행동통일을 모색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中共軍使節團은 北傀軍當局의 환영연회에서 中共軍의 6·25參戰을 힘주어 상기시켰으며, 北傀軍부대를 시찰하는 자리에서는 『필요할 경우 中共은 다시 北傀와 어깨를 나란히 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北傀측은 兩使節團을 각각 환영하는 가운데서 共產主義의 목적을 위한 共同투쟁의 관계를 역설하는 동시에 『나라의 통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金日成集團은 지금 駐韓美地上軍 철수이후의, 또는 철수가 진행중
에 있어서의 赤化統一戰略과 政策의 구상에 몰두하고 있으며 거기
에 대해서 中·蘇로부터 각각 최대한의 支援을 확보하려고 노력하
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北傀總理 朴成哲의 급작스런 모스크바
訪問은 대내외의 注目을 모았던 것이다. 그리고 中共에 대해서는
「朝·中親善團」(2월)과 「勞動黨親善使節團」(4월)이 각각 北
京을 방문, 後者는 中共副首相 李先念을 통해 金日成의 親書를
華國鋒黨主席에게 전달하기도 했으며, 한편 金日成은 平壤을 방문한
中共黨對外連絡委 副委員長(4월)과 新華社使節團을 이례적으로 면
담했었다.

물론 中·蘇는 각각 國際的 權力政治의 利害關係와 또한 對內外
的 政策路線에 따라 韓半島문제에 대한 政策을 독자적으로 선택할
것인만큼 北傀의 要求를 분별 없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카터行政府의 駐韓美地上軍 철수계획에 대해서도 모스크바는
환영하고 있으나 北京은 끝내,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朴成哲
의 모스크바 訪問결과가 北傀측에 불만스러웠던 것은 한동안 平壤
-모스크바 사이의 정치적 접촉이 중단된 사실에서도 엿볼수 있었
거니와 蘇聯측이 駐韓美地上軍철수를 좋아하고 있는 것은 韓半島에
서 戰爭의 재발을 불원한다는 중건의 입장을 변화시킨 징표라고
속단할 것은 못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金日成은 對中·蘇關係를 다같이 南侵에 대한 背後的 支

援세력으로 돌려 보려고 집요하게 획책할 것이 틀림 없다. 이번 中·蘇兩使節團의 平壤招請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視角에서 관찰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몇가지 點을 특히 警戒하고 予見性있게 對策을 강구해야 한다.

1. 北傀에 대한 영향력을 에워싼 中·蘇간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형태로 金日成集團의 南侵계획을 지원 하는 相互경쟁으로 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

2. 北傀는 南侵을 감행해 놓고 그것이 「北傀」에 대한 反擊이라고 주장하여 中·蘇兩國과의 各軍盟關係를 발동시키고자 피할 수 있다.

3. 中·蘇가 다같이 北傀의 南侵에 대한 警戒력으로 돼온 것은 對美關係를 의식할 때 있다고 본다면, 만약 韓美共同防衛體制에 취약점이 노정될 때 中·蘇는 모두 태도를 돌변하여 北傀의 赤化統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나설 可能性이 있다.

註

- 1) 예컨대 다음의 論文을 보라. Donald M. Fraser, "Freedom and Foreign Policy," Foreign Policy, No. 26 (Spring, 1977) PP. 147-48.
- 2) George McGovern, "The U.S. Risk in Korea,"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Defense Review, 1977, P. 6.
- 3) Ibid., P. 6.
- 4) Ibid., P. 12.
- 5) 브레진스키 教授의 外信記者클럽에서의 發言 (75년 5월 26일).
- 6) Mike Mansfield, "U.S. Foreign Policy in a Changing Pacific and Asia," Pacific Community, Vol. V, No. 4 (July, 1974), P. 483.
- 7) Gregory Henderson, "Korea," in Gregory Henderson, Richard Ned Lebow, John G. Stoessinger (eds.), Divided Nations in a Divided World (New York: David McKay Co., 1974), PP. 88-90.
- 8) Selig S. Harrison, "One Korea," Foreign Policy, No. 17 (Winter, 1974-75), PP. 60-62.
- 9) McGovern, "The U.S. Risk in Korea," P. 13.

- 10) 朴奉植, "美·北僞關係의 展望," 第3回統一論壇主題發表論文,
1977. 5.26, P. 1.
- 11) 以下の 部分은 ibid., PP. 2-3
- 12) 美國務省은 3월 18 일을 기해 北僞, 베트남, 캄보디아, 쿠바에
대한 美國市民들의 旅行制限이 正식으로 해제됐다고 발표했다.
프레드릭 브라운國務省代辯人은 이들 4 개국에 대한 旅行을 自
由化한다고 발표하는 자리에서 카터가 關係改善을 하고 싶다고
말한 過去의 敵對國中에는 北僞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브라운代
辯人은 또 美國은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위해서는 南北韓을 합
께 만날 用意가 있다는 것이 벌써 잘 알려진 政府의 立場이
라고 말했다.
- 13) Donald C. Hellmann, Japan and East Asia: The New
International Order (New York : Praeger, 1972), PP. 6-9
- 14) Kimura's statement in [Nikkan kankei o do seikon
suruka,] (How to Rebuild the JaPan-ROK Relations?),
Ekonomisto (The Economist), August 20, 1974, PP. 20-24
- 15) 『서울新聞』, 1977년 4월 22일
- 16) Ibid., 1977년 5월 3일
- 17) Ibid., 1977년 5월 18일
- 18) Ibid., 1977년 5월 3일
- 19) 崔相竜, "日本の 外交·軍事戰略과 對韓政策," 韓倍浩外,
『韓國, 美國, 日本 : 韓國安保의 環境과 課題』(서울 : 垂細垂政策
研究院, 1977), PP. 104-106

- 20) 朴在圭, "北韓의 對美平和協定締結 提議의 底意," 慶南大學 極東問題研究所 主催 北韓統一政策評價세미나論文, P.10
- 21) 『內外通信』, 第8号(1977.2.23).
- 22) 朴奉植, "北韓의 對美外交政策," 『北韓』第65号(1975.5), P.54
- 23) 朴奉植, "美·北傀關係의 展望," P.4.
- 24) 韓倍浩, "韓美日 三國關係의 展望," 韓倍浩外, 『韓國·美國·日本』, P.167~173. 以下 中共·蘇聯·北韓의 三角關係에 대한 分析은 이部分의 畵김이다.
- 25) 以下 崔榮, 「中·蘇의 統制된 對立關係와 韓半島政策」 『北韓』, 47(1975년 11월), P.178
- 26) 以下 金裕南, 「否定的 對決에서의 赤字 外交戰線」 『北韓』, 60(1976년 12월), PP.61-62.
- 27) 禹在昇, "朴成哲은 왜 모스크바에 갔나," 『北韓』 63(1977.3), PP.104-107
- 28) 崔昌潤, "駐韓美軍撤収와 소련의 戰略" 『北韓』 66(1977.6), P.65
- 29) Ibid.
- 30) Donald S. Zagoria, "Soviet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a paper prepared for the Korea and the Major Powers Conference, May 1-3, 1975,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PP.4-5.
- 31) Robert A. Scalapino, "China and the Balance of Power," Foreign Affairs, (Vol. 52, No2(January, 1974), P.369.

32) 『東亞日報』, 1975년 9월 27일, P.3.

33) 崔榮, "駐韓美軍撤収와 中共의 戰略," 『北韓』 66(1977.6), P.74

34) Edward L. Katzenbach, Jr., "Time, Space and Will : The

Poltico, Military Views of Mao Tse-tung," in Lt.

Colonel T.N. Greene(ed.), The Guerrilla and How to

Fight Him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62), P.14